

“한국 사찰음식은 천 년 역사 담은 밥상”

광주유니버시아드 각국 대표단 7월 6일 증심사에서 만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각국 대표단들을 위한 사찰음식 만찬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7월 6일 광주 증심사(주지 연광) 대웅전 마당에서 사찰음식 만찬을 개최했다. 이날 만찬에는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플로드 루이 갈리앙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과 에릭 상트롱 FISU 사무총장, 참가국 대표단을 비롯해 봉사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증심사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이날 만찬은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불교연합회가 후원으로 맛의 교향 광주와 1200년 사찰의 전통을 각국 대표단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시작은 불교문화 시연으로 시작됐다. 사물 중 하나인 범종과 법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법식과 만찬이 이어졌다. 만찬에 앞서 플로드 루이 갈리앙 FISU 회장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 고맙다”며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한 연광스님(광주 불교연합회 회장)에게 선물을 건넸다.

에릭 상트롱 FISU 사무총장도 FISU와

역대 한국에서 개최된 U대회 엠블럼을 담은 핸드메이드 팬트를 선물했다. 이에 연광 스님은 이들에게 발우를 건네며 화답했다.

이날 대표단들은 생소한 사찰음식이지만 만찬 시간 내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음식을 즐기며 큰 관심을 보였다.

사찰음식 만찬을 준비한 연광 스님은 환영사에서 “천년고찰 증심사에서 준비한 오늘 자리는 증심사가 간직한 천년의 역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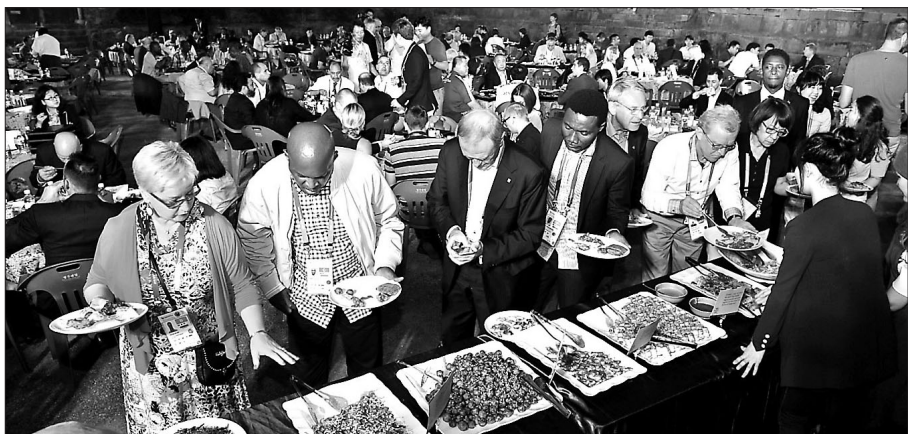
연잎죽, 죽순냉채 등 40종 선보

‘3소식’ 네팔돕기 캠페인도 진행

대회기간 불교문화 체험도 열려

담은 밥상”이라며 “이 음식을 통해 대표단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있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장에서 소개된 사찰음식은 빛 고을자연사찰음식 체험관의 유지원 원장의 지도로 연잎 유미죽과 죽순 겨자냉채, 사찰김치와 나물두부강정, 콩고이 산적 등



7월 6일 광주 증심사에서 열린 사찰음식만찬에서 각국 대표단은 불교문화가 담긴 음식을 맛보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40종이 선보였고, 황차와 연꽃차, 연잎차 등 각종 차류 등이 더해져 대표단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각국 대표단들과 참석자들은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笑食),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고(小食),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한다(蔬食)’는 내용의 ‘3소식’ 캠페인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편,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에는 다양한 불교활동도 펼쳐졌다. 짜장스님으로 알려진 남일 선원사 주지 운천 스님은 지진피해로 고통받는 네팔 재건을 위해 광

주U대회 주경기장 복문에 부스를 마련하고 ‘스님짜장·유네스코가 함께하는 네팔 학교 재건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운천 스님은 운동장을 찾은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매일 아침 점심 저녁 500인분을 제공하고 해라 체험행사와 지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학교의 참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네팔상황을 알렸다.

이와 함께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도 7월 8일 스리랑카 선수와 입원 20명을 초청해 다과와 저녁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7월 6일 개금불사 회향법회에서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지역포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광주 천통사 대세지보살 봉안 및 개금불사 회향

광주 천통사(주지 무등)가 사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세지보살 봉안 및 개금불사를 회향했다. 광주 동구 용연동에 위치한 천통사는 7월 6일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갖고 지역 포교도량의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다.

이날 법회에는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원일 스님(백양사 주지),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호산 스님(태고종광주전남총무원장)을 비롯해 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무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법당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신

도를 위한 법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창건하신 벽상스님의 유지와 신도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더욱 더 정진할 것이며, 지역 포교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좋은 도량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통사는 조계종 18교구 백양사 말사로 1976년 벽상 스님에 의해 창건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전계사 스님들이 학생들에게 오계를 내리는 연비를 하고 있다.

불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종립 정광학원 7월 9일 백양사에서 수계식 봉행

불교종립 정광학원(이사장 원일, 백양사 주지) 정광중학생들의 수계식이 7월 9일 백양사에서 봉행됐다. 전체 554명의 중학교 2,3학년이 참여한 가운데 276명의 학생들이 이날 삼귀의계와 오계수계를 받았다.

전계사 원일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귀의계와 오계는 자신과 남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규칙으로, 늘 유념해 계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수계식이 이어 백양사 박물관 견학, 산사체험 등을 진행했다. 정광중학교 학교측은 “이번 수계식을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종교적 가치관을 심어 주고, 바른 생활의 규범을 전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만암 대중사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선암사, 대흥사 등 5개 사찰의 출연과 협조 하에 대중포교와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양성할 목적으로 1946년 10월 10일 설립된 70년 전통의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 명문 사학이다. 현재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에서는 54개 학급 2,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기우똥’ 옥천 용암사 석탑 옛 모습 되찾아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보물 제1338호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정리 용암사 쌍삼층석탑(龍岩寺 雙三層石塔)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옥천군은 7월 2일 지난해 5월부터 1억 5천만 원을 들여 이 석탑을 완전히 해체한 뒤 기울어진 탑신과 기단부를 바로잡아 다시 세우는 복원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석탑은 2012년 구조 안전진단 결과 하부 지반 암반층의 불균형으로 동탑은 동쪽으로 87mm, 서탑은 동쪽으로 196mm 각각 기울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옥천군 관계자는 “해체과정에서 사리공과 직물류 등 유물이 발견돼 불교중앙박



물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고려시대 축조된 이 석탑은 대웅전 북쪽 봉우리에 1.7m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다. 높이는 동탑 4.3m, 서탑 4.1m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2002년 보물로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고창군다문화가족協, 지역발전 업무협약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대원)과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회장 김현수)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7월 7일 복지관 1층 관공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 김현수 회장, 김홍준 부회장, 김명태 부회장, 신성일 부회장, 김주현 운영위원, 정재우 고창지회장, 김주진 고수면지회장, 김상현 상하지회장, 유동근 심림지회장, 김혁희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으로 양 기관은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후원 외에 복지관과 지역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홍준 부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일염 1,000kg(20kg 50포)를 고창푸드마켓에 전달했다.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는 앞으로도 김철철 등에서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관장 대원 스님은 “평소 지역 후원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오신 고창군다문화가족협의회에 항상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복지관과 협의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인 서봉사지서 고려시대 강당지 확인

용인시는 7월 8일 광고산 자락에 있는 고려시대 서봉사지(瑞峰寺址)에 대한 3차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조사기관인 한백문화재연구원 이날 발굴 현장에서 고려시대 강당지로서 보이는 대형 건물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건물지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길이는 18m, 너비는 6.8m이다. 정면에 마당을 포함하는 구조로 전면에는 계단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 등은 명문기와 어골문, 평기와, 대형맷돌 등 고려시대 유물 100여점이 함께 출토된 점과 건물지 규모 등을 토대로 이곳에 고려시대 서봉사의 강당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1, 2차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 등 조선시대 건물지만 발견돼 고려시대 건물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봉사는 고려 명종 15년(1185년)에



세워진 대규모 사찰이나 현재 현오국사탑비(玄悟國師塔碑, 보물 제9호)만 남아있을 뿐 조선 후기 폐사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2년 수립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시굴조사와 1, 2차 발굴조사를 통해 현오국사탑비가 위치한 중원지역에서 조선시대 건물지, 석탑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 4월 시작된 3차 발굴조사는 오는 20일 완료 예정이지만 시 등은 추가 발굴을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mm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넌) 8cm]

www.hyunbulshop.com